

군산시장, 선박펀드 물량 배정 요청

국민의당·민주당 당사 방문 강력 건의... 당사 앞 릴레이 시위자 격려·참여도

문동신 군산시장(사진)이 2017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수상했다.

13일 문 시장은 국민의당과 더불어 민주당 당사를 방문하고 군산조선소 준치의 필요성과 정부의 선박펀드 프로그램에 따른 선박신조 물량배정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당사 앞에 진행 중인 릴레이 시위자를 격려하고 직접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또한 이날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박 펀드 신조 프로그램으로 발주하는 현대상선 초대형 원유선(VLCC) 10척에 대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올 6월 가동중단을 앞둔 군산조선소의 입장에서 236천억원 규모의 선

박펀드로 신조하는 현대상선 10척의 물량은 군산조선소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기도 하고 초대형 유조선(VLCC)은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하기 최적의 선종이기에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피력했다.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선박신조 물량은 가동중단을 앞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반드시 배정해서 지역을 살려야 한다

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문 시장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지역경제 침체와 연관산업 붕괴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현대상선 선박건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재검토하고 정부는 반드시 군산조선소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박펀드 건조 물량은 반드시 군산조선소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서부보호지침, 역량강화 워크숍

전북서부보호지침은 2017년 2분기 복지인력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12일 오전 9시경 지청 3층 황금재실에서 개최했다.

복지인력 역량강화 워크숍은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보호책임자 및 일반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이은혜 강사의 강의로 보호책임자 1개교 교화를 강화하였다. 또한 '영화를 통한 분리불안 심리치료'를 심리상담사인 이승수 익산우체국장이 진행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립도서관, 내일 '독서문화한마당' 운영 도서관 옆 수송근린공원에서

군산시립도서관(관장 정준기)은 오는 1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시립도서관 일원에서 '2017 독서문화한마당'을 진행한다.

시립도서관 옆 근린공원에서는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클레이 공작 목걸이 만들기, 책분류·책표지 퍼즐 맞추기, 동화나라 포토존 등 다양한 만들기와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책놀이터 체험부스'를 준비했으며, 한우리독서운동본부의 지원으로 '우리아이 독서능력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도서관 앞마당에서는 '책나눔 도서관교환장터'를 열어 시민이 준비해 온 개인도서와 도서관 측에서 준비한 도서를 1대 1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며, 교환 대상 도서는 2007년 이후 출판된 도서로 문예집이나 잡지, 파손된 도서 등은 제외된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오는 1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시립도서관 일원에서 '2017 독서문화한마당'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시립도서관 ☎ 454-5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정현 기자

군산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모집

군산시는 오는 24일까지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총괄코디네이터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군산시청 2층 도시생과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총괄 코디네이터의 주요업무는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선도지역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의사전달,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도시재생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군산=정현 기자

익산시 패션단지 기업유치 지원 강화된다

개정 조례 오늘부터 시행... 지원수준·대상 확대로 선순환 효과 창출 기대

익산시가 14일부터 익산 패션단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 내용을 대폭 정비해 개정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지원조례)'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 개정된 조례는 패션단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로 이전하는 국내복귀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사업영위 3년 이상 된 상시 고용 5명 이상 소규모 국내복귀기업의 1억원 초과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중복지원의 경우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중 보석업종의 기업에 한정되었던 것을 보석, 섬유, 가방, 화장품 등 패션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추가 입지보조금의 경우 보석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부지가격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100분의 25범위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패션단지 이전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최대 3년 이내로 2020년까지 시설투자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 시설투자금의 최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수준과 대상은 확대하고, 지원요건 등은 명확하게 하여 주얼리, 섬유 등 패션업종의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주민 소득 증대 및 인구유입 등의 선순환 효과 창출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문동신, '신뢰받는 CEO 대상' 수상

문동신 군산시장(사진)이 2017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수상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문 시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영예를 안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상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능동적인 사고와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최고경영자를 선정하여 이를 격려하기 위한 상.

문 시장은 '리더십' 3항목, '경영활동 및 성과' 3항목, '사회적 책임' 2항목 등 총 3개 지표 8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 시장은 지난 2006년 민선 4기 시장으로 첫 취임하면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이라는 시장목표를 세우고 '풍(豊)·화(和)·격(格)을 갖춘 명품도시'



구현을 통해 군산의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 내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행정을 펼쳐 왔으며, 이번 수상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새만금 남북2축도로 조성사업 등 1조4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을 달성했으며, 시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천혜의 자연 경관을 품은 고군산군도의 관광활성화를 통해 '군산 2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

문 시장은 "그동안 군산시가 보여준 발전의 성과는 함께 노력해 온 28만 시민과 1,400여명의 공직자 덕분이었다"면서 "아낌없는 격려와 신뢰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보석박물관 '블링블링 주얼리 콘서트' 인기

익산시가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보석박물관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상설공연 '블링블링 주얼리 콘서트'의 관람객 반응이 폭발적이다.

지난 8~9일 이들 동안 연이어 펼쳐진 블링블링 주얼리 콘서트 첫 공연은 '목마와 숙녀들', '리쑤', '엔터테인먼트' 등 수준급의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보석을 찾아라', '탄생석 맞추기', 'SNS 인종샷', '보석을 향해 싸라' 등 이벤트, 보석 네일아트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일간 약 2,000명의 관람객이 공연과 체험을 즐겼다.

시 관계자는 "대표관광지 상설공연에 대한 호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

다. 보석박물관 방문객 연령층을 파악하여 어린이를 위한 서커스 공연, 20~30대 커플을 위한 보컬 공연, 40대 이상을 위한 포크 공연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이 주효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관람객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5~16일에는 보석대축제 특별 공연으로 '보석가야제'와 '주얼리 갓스타' 공연대회가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의 공연과 더불어 지역 가수·공연단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보석대축제 이후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으로 진행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 강력 추진

군산시는 지난달 기준 지방세 체납액 152억7,6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채권 압류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 중심에서 환가성이 빠른 예·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공탁금 등의 숨어있는 채권 재산을

조사·압류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압류 처분 외에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김판근 기자